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군사강국은

1970년대 재무장계획의 연기로 인한 장비획득 시의 원거리 수송문제와 1980년대초 미국의 베트남 철수로 인한 안보환경의 급격한 악화 및 방위군의 생활수준 향상에 필요한 급격한 인건비 상승등으로, 1980년대초부터 군 현대화와 독자적 국내방산능력 증대 및 방산기지 건설에 막대한 투자를 요구받고 있다.

이에 따라 엄청난 수요가 단기간에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西유럽, 소련 및 중국의 무기수출과 호주, 중국(PRC),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파키스탄 및 대만과 같은 국가와의 방산협력에는 좋은 징조가 되고 있다.

한편 아세안회원국(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폴, 태국)들은 군 현대화계획을 국내안보와 폭동진압작전에서 재래식 병기로 전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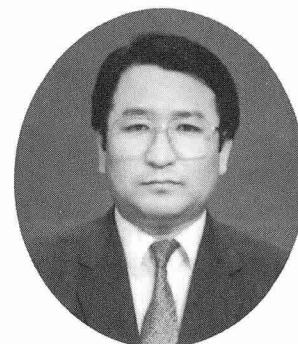
이것은 이 지역에서의 서구전략우산에 대한 신뢰성 감소와 아세안 회원국들에게 점점 더 치명적이 되고 있는 해상 독점경제구역 보호와 같은 가장 중요한 새로운 안보 관심사항의 출현이 주요 요인이 된다고 하겠다.

상하이 국제문제연구소의 Guoxing 정치학교 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아시아－태평양은 국경분쟁과 인종대립 및 국지적 분쟁을 야기시킬수 있는 섬과 해상권에 대한 불화가 많은 곳이다. 앞으로 얼마간은 현재의 주요쟁점들이 미결인 상태로 지속될것이나, 새로운 쟁점들이 계속 부상할 것이다.

비록 간헐적으로 대화가 진행되고는 있으나 한반도에서의 대립은 계속될 것이다. 아프카니스탄내란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캄푸치아 분쟁의 정치적 타결을 위한 분위기는 아직 성숙되지 않고 있다.

현재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대만, 중국에 의해 분할되어 있는 Nansha(Spratly) 섬에 대한 불화도 지속될 것이며, Xisha(Paracel) 섬에 대한 그들의 주권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다. 긴장완화 노력으로 첨예화되지는 않겠지

## 아시아·태평양국가들의 전력 현대화 계획 (1)



金 在 淳 / 국방과학연구소  
책임기술원

세계적인 추세인 다극화 경향에 따라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들은 군사력 증강과 軍 현대화 및 自國軍을 지원할 여러 防産기지의 건설을 통해, 안보와 외교정책상의 실질적인 자유를 획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동향에 맥을 같이 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들의 軍 현대화 계획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은 총 2편으로 구성되며, 이번호에서는 아세안 회원국을 먼저 다루었으며, 다음호에서는 호주, 중국, 대만, 일본, 파키스탄 그리고 印度 등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다.

(편집자 주)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1980년대초부터 軍 현대화와 독자적인 자국내 방산능력 증대 및 방산기지 건설에 막대한 투자를 요구받고 있다. 사진은 Milan 대전차 미사일

만,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대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東지나섬들에 대한 불화가 분쟁을 재발시킬 가능성 있다.』

### 아시아-태평양에서의 다각적 군사협조

비록 아세안회원국인 6개국들 사이의 양면적 연결관계가 수년동안 지속되어 왔었지만, 지금은 군사동맹보다는 경제적인 면에서 협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가 군사적 협력은 없을 것이라고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장래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일부 분석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군사장비 획득에서 대부분 경쟁상태였던 아세안국가들이 1980년대 이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싱가폴 3개국간의 공동획득계획이다. 이들 3개국은 Milan 대전차 미사일, Rapier 저고도 SAM(사진) 및 GIAT社의 LG-1 105미리 야포 획득계획을 세웠었다

Tengku Ahmad Rithauddeen 前 말레이시아 국방장관은 『아세안 국가들 사이의 진밀한 군사협력은 지역을 위해 좋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최근의 어느 한 회원국과 다른 회원국 사이의 군사협력 실시는 확실한 신뢰구축과 이해를 증진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은 지역의 신뢰회복과 안정에 기여하였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세안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여 아세안정신을 위배하게 될 것으로는 믿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말레이시아는 양면적 협력관계에서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고 있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양면적 구조나 다각적 접근법에서



방위산업 협력과 관련협력을 하는 것은 회원국들에게 해를 끼칠 것으로 생각치 않으며, 아세안에게 경제적 이익을 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첫 협력이 장비획득을 위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태국과 싱가폴 및 인도네시아에 의한 F-16A/B획득과 같은 예외를 제외한다면 장비획득에서 대부분 경쟁적이었던 아세안국가들이 협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소규모지만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싱가폴과 같은 국가들이 공동획득계획(이들 3개국에 의한 Milan 대장갑 미사일, BAe社의 Rapier 저고도 SAM 및 GIAT의 LG-1 105미리 야포를 획득하기 위해 세웠던 계획과 같은)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협력들을 확실히 실천하고 소화기나 군수품분야에서의 중복투자를 피하기 위해 지난해 싱가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에서 온 방산품 제조업체들이 아세안 방위산업협의회(ASEAN Confederation of Defence Manufacturers)를 결성하였다.

이에 따라 군사병기의 공동생산을 늘리고 고유 병기산업에 있어서는 경쟁보다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최근 동남아시아에서 개최되고 있는 몇몇 방산전시회를 정례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정하였다. 태국과 브루나이도 결국에는 이 협의회에 가입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및 아마도 인도까지도 포함하는 거대한 東아시아 경제동맹에 대한 최근의 토의에 따라 동맹이 만약 성공한다면, 이 동맹은 아시아-태평양 우주항공 및 방위산업체들이 수행하게 될 혁신적 연구개발로 인한 거대한 잠재력을 가지게 될 것이며, 미국이나 유럽과 협상을 보다 유리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 브루나이

아세안의 최근 가입국이고 최소국이며, 여러 가지 대외교환 신청이 폭주하고 있는 브루나



브루나이가 획득할 Hawk Mk 200 다목적 경전투기

이는 풍부한 산유국으로서 자국의 안보를 보장받기 위해 영국과 긴밀한 제휴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존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제한된 인구문제—단지 25만 6천명(2백50만명의 싱가폴이 직면한 것과 비슷한 문제)—로 자국군을 크게 확대할 수 없기 때문에, 영국육군의 Gurkha대대에 의존하여 육상전투군(앞으로 1997년까지 여단으로 확대될 것이다)을 구성하고 있다.

경제적문제 보다는 인구문제로 인해 개량무기 체계의 평가, 선택, 획득과 도입에서 신중하고려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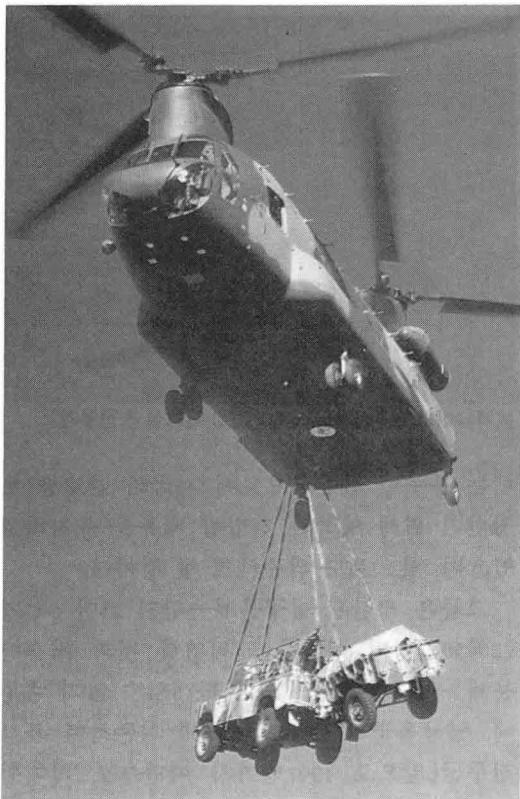
브루나이는 앞으로의 군사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점차적으로 싱가폴의 국방조달제도에 의존하게 될 것이고, 또 이를 모방할 것이다. 결국은 몇가지 유형의 무기들 특히 기본훈련기, 소화기 및 탄, 미사일 쾌속정이나 소해정과 같은

호주 공군장교가(맨 오른쪽) FPDA회원국 조종사들에게 F/A-18 Hornet기를 소개하고 있다

5개의 FPDA회원국은—

호주,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싱가폴, 영국 등이며 상호 공군들간의 협동작전을 시험하기 위한 방공훈련을 매년 합동방공체계(IADS)로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C-47 Chinook 병력 및 장비수송 重헬기

주요무기들을 공동획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확실한 대공방어와 근접항공지원 및 해상방어를 위해 약 20대의 Hawk Mk 200 다목적 경

인도네시아 공군의 F-16 Fighting Falcon이  
인도되기 前 미국에서 수락시험비행을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항공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했으며  
가까운 장래에 60여대에 이르는 F-16 전투기를 구입하여  
공군력을 대폭 증강할 계획이다



전투기를 획득할 예정으로 있으며, 우선 Hawk Mk 100 개량제트훈련기 16대와 S211 기본제트 훈련기 4대를 획득하였다.

해상경비를 위해 여러 터보프로펠러 플랫폼 (Platform)과 관련된 특수임무용 감지기를 금년말까지를 기한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국의 중거리 병력/화물 수송에 적합한 항공기를 선택, 획득하기 위해 현재 MPA 2대와 화물수송기 1대(인도의 IPTN社가 건조한 CN-235가 선정될 것으로 보이는)를 획득할 예정으로 있다.

고정익기 관련물자의 확대를 위해 Bandar Seri Begawan에 있는 主항공기지, 항공교통통제시스템(Avtel Pry社가 계약 체결), C<sup>3</sup>시스템 및 방공포 물자들을 개량하고 있다.

아직 고위층의 계획단계이긴 하지만 군은 Rapier 방공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사를 하고 있으며, 또한 Rapier를 보완할 몇가지 부수적 시스템을 획득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해군력 증강을 위해 유도미사일 쾌속정에 대한 5개회사—즉 ‘Vigilance’급 선을 제시하고 있는 Vosper Thornycroft, 고도의 기술로 개발된 85미터 함정을 제시하고 있는 Bremer Vulkan, Lurssen, Fincaneri and PT Pal Surabaya의 입찰을 현재 조사분석하고 있다.

브루나이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부터 유익한 교훈을 얻었음이 확실하다. 이미 싱가폴의 「독이 든 작은 새우」 정책과 같은 억제 정책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풍부한 석유를 보유하고 있는 이 이슬람국(Sultanate)은 앞으로 비록 소규모이기는 하겠지만, 병력에 비해 많은 개량된 무기들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아세안회원국들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으며, 지리적 면적이 가장 넓은 나라이다. 1만3천여개의 섬으로 구성된 인도네시아군도(群島)는 인도네시아군에 실제넓이에 비해 막대한 방위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인도네시아 해군은 대함 방어 및 대잠수함용으로 IPTN社가 건조한 NAS. 332 Super Puma 헬기(사진)와 함께 해상경비와 구조용으로 현재 보유중인 6척의 독일 「Van Speijk」급 호위함에 적절한 ASW/ASV 함재용 헬기를 해안경비 레이다와 함께 획득할 것이다

또한 군도는 지리적 취약성과 더불어 세계의 가장 불비는 해운로중의 하나이며, 이 해운로는 인도, 싱가폴, 말레이시아, 한국, 대만, 태국, 필리핀 및 일본 경제의 생명선이다.

Sunda, Lombok와 Malacca 해협은 해운로(SLOC)의 가장 심한 병목지점일 뿐만아니라, 소련이나 미국 해군함정이 태평양에서 인도양과 아라비아해로 이동하는 것을 확실히 보장

할수 있는 곳이다. 따라서 美 국방부는 인도네시아가 아세안에서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취약지역을 경비하는 것은 아주 조심스러운 일이며, 해운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해적, 태업, 환경오염 행위등을 막을수 있는 대비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해상경비를 가장 중요

프랑스 GIAT社의 LG-1 105미리 아포는 인도네시아가 획득해야 할 주요장비의 선정대상품목이다



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임무를 맡을 수 있도록 AGM-84A 하푼 대함미사일이 장착된, IPTN이 건조한 CN-235 쌍발-터보프로펠러기를 30대 이상 획득하여 군도에 전략적으로 배치할 계획으로 있다.

앞으로 최근의 국가독점경제구역을 경비할 필요와 함께 미사일 촇속정 30척 및 일반 유도 미사일호위함 23척의 건조를 통한 국내 조선 산업을 증진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해군이 방위비 할당을 많이 받게 될 것으로 국가방위 계획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미 해군은 독일의 Lurssen Werft와 촉속정 계획(여기서 4척은 구매)에 대한 포괄적인 협의를 하였다. 또한 호위함계획은 중국이 2천9 백톤형 「Jianghu V」 호위함 선체를 우호적인 가격으로 판매하여, 인도네시아가 서구의 특수 임무 감지기와 동력장치로 개량하기로 제의함에 따라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해군은 대함방어 및 대잠수함용으로 IPTN이 건조한 NAS.332 Super Puma 헬기와 함께 해상경비와 구조용으로 현재 보유중인 6 척의 독일 「Van Specjk」급 호위함에 적절한 ASW/ASV 함재용 헬기를 해안경비레이더와 함께 획득할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1만3천여개 群島의 문제지역으로 육군을 신속히 이동배치하기 위해 NBo-105 헬기를 비롯한 주요 장비획득이 1990년대말까지 진행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1990년대 중반에는 해군이 운용중에 있는 Type 209 SSK 잠수함 2척을 개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이렇게 증강된 함대를 수용하기 위해 해군에 약 2조원(27억 7천만불)을 할당하여 자바(Java) 남동부에 있는 현재의 사령부를 수마트라(Sumatra)의 램팡(Lampang) 지역에 있는 텔럭 라타이(Teluk Ratai)로 옮기는 20년계획을 세우고 있다.

최근 새 기지에 설치될 자동지휘통제시스템에 대한 입찰이 주요 경쟁자인 Hughes, Unisys 및 Westinghouse와 붙여졌다. 또한 그들의 영국 제 구형 해군함정과 유조선 일부를 수리하기 위한 기금을 할당해놓고 있다.

군도의 문제지역으로 육군을 신속히 이동 배치하기 위해 IPTN이 건조한 NBell 412와 NBo-105 헬기를 포함한 주요 장비들의 획득계획이 90년대 말까지 계속 진행될 것이다.

또한 방위계획가들은 미국의 Chinook C-47 헬기와 이와 유사한 헬기들을 병력 및 장비수송용으로 획득하기 위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동시에 새로운 장갑차, 경전차, Euromissile Milan(이미 주문됨)과 같은 개량된 대장갑미사일, 대공포, 155미리 곡사포와 105미리 야포(GIAT LG-1이 체택됨)로 구성되는 지상포, 모든 전략요충지역과 근해유전을 연결하는 지휘 및 통제시스템들을 획득할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현 Rapier 미사일 시스템의 개량과 다른 방공미사일의 획득계획이 진행중에 있으며, Rapier, Crotale과 Roland가 최종선정대상에 올려져 있다.

국영 PT Pindad사가 육군의 소화기 수요를 맡게 됨에 따라 그들은 그들 제품을 세계로 팔기위한 노력을 더욱 경주하고 있다.

대공방어와 근접항공지원이라는 공군의 핵심임무 수행과 61대의 노후한 McDonnell Douglas A-4E/H Skyhawk 지원기 편대의 교체를 위해, 1990년대 중반이후에는 세계가 인정하며 신뢰



말레이시아는 유럽의 Tornado(사진), 미국의 F-16 및 F/A-18, 프랑스의 Mirage 2000 등 고성능 전투기 획득을 검토하고 있다

할수 있는 BAe社의 Hawk Mk 200과 선정대상으로 가장 유력시되는 Aeritalia-Aermacchi-Embraer의 AMX기를 획득할 예정이다.

대공방어를 위해 현재 취역중인 F-16 12대와 함께 궁극적으로 60여대에 달하게 될 F-16A/B 편대의 추가획득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공군은 개량된 조종장비들을 운용할수 있도록 조종사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최종선정대상에 올라있는 Hawk Mk 100과 Czech Omnipol의 L-39 Albatross로 구성되는 1개 중대급의 개량제트훈련기를 획득할 계획으로 있다.

마지막으로 섬들사이의 통신기반시설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중용도(군용 및 민간용)의 위성통신 분야에 집중투자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계획들은 1989년에 창설되어 Suharto 국가원수가 소장직을 맡고 연구개발부장관인 B.J. Habibie 박사가 운영을 맡고 있는 전략산업연구소(Agency for Strategic Industries)가 추진하는 계획이다. 4만2천5백명을 고용하고 있는 이 연구소는 총 10여개에 이르는 국영회사들이 책임지고 있다.

## 말레이시아

1980년대초의 경기후퇴와 군의 폭동진압 전념 및 수년동안의 무관심까지 겹쳐 고통받았던

말레이시아 육, 해, 공군은 최근 1991년부터 1995년까지의 제 6차 말레이시아계획 기간동안 약 6조2천억원(85억불)정도로 추정되는 영국과의 재무장계획 양해각서와 함께 그들의 「Perista」를 가장 잘 실현할수 있는 시점에 서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의 첫 시도는 1988년 9월 말레이시아공군이 처음으로 Hawk Mk 100기 10대, Hawk Mk 200기 18대, 비행시뮬레이터 1대, GEC Marconi Martello社의 S-743D 감시레이이다 2대와 포괄적 C<sup>3</sup>I시스템을 일괄획득하기로 英-말레이시아 양해각서에 서명함에 따라 시작되었다.

1991년부터 1995년까지의 제6차 5개년계획 기간중에 클러스터탄을 포함한 Hawk와 BAe Dynamic의 Sea Eagle 대함 및 ALARM 대함 미사일 체계가 Syarikat Marlaysia Explosives (SME)와의 절충교역으로 획득될 것이다.

대공방어를 위해 Contraves Skyguard 레이다를 장착한 Oerlikon 35미리 대공포 12문과 Marta Mistral 개인휴대용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획득하였다.

육군은 현재 Vicker社의 FH-70 155미리 곡사포 9문을 획득완료하고, 1억불 상당의 Steyr SLR 6만5천개를 주문하여 SME Tool Sdn Bhd가 면허생산하고 있다.

이미 양해각서가 체결된 대단위 복합훈련단지를 Gemas와 Mersing에 제6차 계획으로 건설



필리핀 공군은 SIAI Marchetti S211 아음 속 제트 훈련기(사진) 18대를, 현재 인도중인 18대에 추가하여 일괄 획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어 각각 1개 중대급의 BAe Hawk, AMX, MB339 혹은 Alpha 제트기와 같은 신형 제트훈련기를 획득할 것으로 예상되나, 다목적 전투기에 대한 계획은 2000년 이후로 연기되었다

하기 위해 영국과 국제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결말은 나지않았다.

이러한 시설들은 육군을 재래식 및 특수무기 기법으로 훈련시킬수 있도록 할 것이며, 최초의 155미리 포사격장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Gemas 복합훈련단지는 2개 대대/연대와 장갑수리공장, Ulu Tiram, Johore에서 옮겨올 전투훈련센터와 전차, APC, 박격포 및 수류탄 사격장을 수용할 것이다.

다음은 현재 보유중인 35대의 F-5E와 더불어 F-5E/F 요격기 및 새로운 다목적전투기(사우디공군이 그들의 F-5E/F 60대를 말레이시아공군에게 팔겠다고 제의함)를 개량하고, 또 이들의 항공전자장비들을 개량할 것이다.

이와함께 현재 보유중인 33대의 Sikorsky S-61 A-4 Nuri 헬기를 무장하거나 교체 혹은 개조할 것이며, 대체헬기로는 Super Puma의 후속기인 Augusta 헬기와 C-47 Chinook이 경쟁하고 있다.

한편 영국의 Tornado, 미국의 F-16C/D 및 F-18A와 Mirage 2000이 정책입안자들에게 제시되어 있고, 최근에는 소련이 MiG 29전투기와 「Neptune」급 재래식 잠수함을 제안하고 있다.

1991년 2월초의 이 제안은 MiG-29를 약 1백80 억원(2천4백만불)에, 3척의 신형과 1척의 중고 잠수함을 약 2천7백억원(3억7천5백만불)에 제시하고 있어서 큰 매력을 끌고 있다.

Subang에 기지를 둔 AIROD Sdn Bhds社를 이

나라 최초의 항공기수리와 검사 및 제조업체로 키우려는 노력을 최근 진행시키고 있다.

AIROD는 1980년초 창설이래 현재 취역중인 C-130, DHC-5 Caribous, A-4 Skyhawk, F-5 Tiger II, Fokker F-27과 F-28, Do-228의 획득 등 놀라운 일들을 많이 수행하였다.

곧 BAe-Rolls Royce와의 절충교역으로 Hawk 계열의 제트훈련기와 전투기를 수리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어, 인근지역의 Hawk 고객들과 수리 및 정비계약을 체결할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해군은 신세대 근해경비정에 대한 설계평가를 하고 있으며, 이들을 10여년에 걸쳐 18척정도를 획득하여 말레이시아의 새로운 독점경제구역의 경비를 맡길 것이다.

이에따라 8개회사들- 한국의 4개회사를 비롯한 영국, 독일 및 프랑스회사들- 과 설계 및 기술이전을 위한 접촉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함정은 SAR/ASW 헬기로 무장되기 때문에 해군비행단은 Lumut에 있는 그들의 시설을 확장하고 있으며, 현재 보유중인 6대의 Westland Wasp HAS-1과 곧 추가될 6대의 회전익기 편대를 지원하기 위한 다른 해군기지를 Sarawak에 건설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해군은 지난 12월 스웨덴의 Kockums社에 SSK 잠수함 4척(2척은 신형 그리고 2척은 중고)을 주문하였고, 그중 2척은 훈련용이

될것이다. 벌써 3년전 부터 미래의 잠수병을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및 스웨덴으로 보내어 진보된 전략 및 기술훈련과정을 배우게 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1990년 10월말 짧고 의욕적인 Datuk Seri Najib Tun Abdul Razak 신임 국방장관이 취임하여 병력을 감축하지만, 더욱 효율적인 군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전략과 정책을 세우고 있다.

비록 병력은 감소했으나 더욱 증강된 육군을 보완하기 위하여 예비군의 수를 늘리고 있다. 또한 사단급의 긴급배치군을 고려하고 있으나, 기동력과 화력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며, 이미 약 14조5천억원(2백억불)의 개발예산중 16%에 달하는 제6차계획예산의 50%가 양해 각서에 위임되었기 때문에, 이의 실현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전차, 장갑차량, 방공시스템, 포 및 관련장비들을 획득하여 긴급배치군과 비슷한 역할을 할수 있도록 무장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예산을 16% 증가시키지 않는다면 그들의 획득계획중 일부는 불가피하게 연기해야 되기 때문에, 제6차 계획에서의 우선 순위에 대해 다시 검토하고 있다.

그들은 잠수함, 2척의 쾌속정 혹은 독점경제 구역 경비에 긴급히 필요한 근해경비정의 어느 것을 획득할 것인가를 결정해야만 하며, 해군은 이 계획에서 원했던 모든 것을 다 갖지는 못할 것이다.

말레이시아의 고유 방위산업은 서구의 기업과 비교하여 방산물자의 자족도면에서 아직 유아기 상태에 있다. 약 4개의 기업을 포함한 민간기업이 이러한 분야 특히 소화기, 탄, 조선수리, 전투식량, 야전취사기구, 전기통신장비 및 장갑차량과 같은 분야에서 더욱 활발한 임무를 맡도록 장려되고 있다.

쿠알라 룸푸르에 있는 국영 과학기술센터와 말레이시아군 전력유지를 위한 주요병기의 보조시스템이나 구성품의 제작, 수리를 담당하는

93개 조병창 및 해군의 군수품 및 함정의 유지 보수를 위한 Lumut 해군조병창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Tengku Ahmad Rithauddeen 前 말레이시아 국방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의 방위산업능력은 아직 미미하므로, (외국)방산업체들은 여러 분야 특히 통신, 무기체계, 기술분야등에서 절충교역이나 공동생산을 통해 우리와 사업할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 절충교역이나 공동생산을 통해 우리와 사업할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

절충교역이나 기술이전은 새로운 일이 아니며, 많은 나라들이 그들의 방위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그렇게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산업발전을 지원할수 있는 아주 적절한 기간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으며, 방산업체들은 각국의 뜻에 맞도록 지원해야한다.』

또한 그는 세계시장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방위산업 참여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여 적극적인 시장전략을 펼친다면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어떠한 방산제품은 자체수요가 너무 적어서 지역생산으로는 생존할 수 없으므로, 생산규모의 경제성을 얻기 위해 국제시장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따라서 AIROD와 같은 기업은 세계 시장으로 뚫고 들어갈수 있게 될 것이다.』

## 필리핀

미국의 Clark 공군기지와 Subic만 해군기지가 앞으로 정착할 가능성은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연결되어 생각되어져야 하며, Spratly섬 문제는 필리핀군에게 그들의 전략적 위협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다.

조병창의 노후화에 따라 필리핀 육군은 군 현대화 10개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육, 해, 공군은 주요한 시설들을 갖추게 될 것이다.

육군은 10%의 절충교역으로 약4백억원(5천6백만불) 상당의 GKN Simba 장갑병력수송차 1백50대와 더불어 현대화된 통신장비, 1백여대의 범용장비, 항공정찰용 무장헬기 및 전략통신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다.

해군은 Halter Martine에 30척의 고속경비정(단가1백80만불)을, 호주의 Launceston Marine社에 2억불 상당의 FPB 6척(Philippine Dockyard and Engineering이 면허생산함)을 주문하였다.

한편 공군은 SIAI Marchetti S211 아음속 제트훈련기 18대를 현재 인도중인 18대에 추가하여 일괄획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어 각각 1개 중대급의 BAe Hawk, AMX, MB339 혹은 Alpha 제트기와 같은 신형 제트훈련기를 획득할 것으로 예상되나, 다목적 전투기에 대한 계획은 2000년 이후로 연기되었다.

또한 기지와 해안의 대공방어를 위해 Marta Mistral SAM을 처음으로 일괄획득하였으며, 감시시스템, 방공미사일 및 Commodore Reef에 (Spratly섬중의 하나) 대한 병참선 유지를 위한 다용도 중거리수송기를 포함한 기타장비의 획득이 예상되고 있다.

## 싱가폴

총력방위개념(스위스, 이스라엘, 스웨덴, 대만의 모델과 같은)에 따라 장비와 능력을 비

싱가폴 CI社의 고도로 자동화된 FH-88 155미리 곡사포



싱가폴 Brani 해군기지에 있는 전략훈련센타(TTC) 전략훈련센타는 컴퓨터화된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해상의 실제 상황을 시뮬레이팅하거나 3차원의 전쟁게임을 할수 있다

슷하게 표준화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싱가폴 육군이 고도기술병기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고도기술사회가 되려는 이 나라의 염원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싱가폴은 수년동안 민간 및 군 계획입안자들이 긴밀히 협조하여 합리적인 방위정책 결정과 장비획득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왔다.

꾸준히 형성된 기술과 인간재능간의 관계는 경제성장과 발전의 배경이 되었고, 이러한 변수들간의 내부관계가 추세에 반영되어져 싱가폴 방위지출에서 주요 전환점을 만들고 있다.

포위공격(그들의 경제적 물리적 취약성 때문에)된다는 잠재적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 싱가폴은 우수병기의 획득에서 인접국 가들에게 뒤질수 없었으며, 경제적 정체현상도 견딜수 없었다.

따라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해 서구의 항공우주산업 투자가들을 유치하여, 자국내에서 사업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다른 아세안회원국에서는 볼수 없는 다양한 관례와 세법으로 이익을 보장하고 있다.

최근 싱가폴은 국가 최고경제개발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산업 및 군사용 터보프로펠러기, 항공기, 헬기 및 무기들을 수리하고 서비스할수 있는 최초의 센터를 건설하기 위해 인접국 인

도네시아 및 태국과 경쟁하기로 결정하였다.

印度와 같이 싱가폴도 방산물자의 자급자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협력국인 호주와 함께 수년동안 자국의 병기산업을 Sheng-Li Group의 기치아래 튼튼하게 육성시켜 왔다.

이 그룹의 일원인 Singapore Technologies社는 육군 및 공군의 보수유지를 맡고 있으며, 또한 필리핀,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공군의 C-130 B/H에 대한 창정비 수준의 보수유지 계약을 맺고 있다.

한편 Sembawang 조선소와 Keppel 조선소 및 Singapore Shipbuilding and Engeneering은 싱가폴 해군과 지역고객들의 수요를 맡고 있다.

Sheng-Li Group의 자회사인 Chartered Industries社는 다양한 소화기와 탄, 40미리 자동 유탄발사기, 12.7미리 重기관총, 고도로 자동화된 45구경 및 52구경 FH-88A 155미리 곡사포를 성공적으로 개발완료하여, 이들중 일부는 태국과 필리핀에 수출된 것으로 믿어진다.

더불어 미국육군 특수부대가 소량의 5.56미리 Ultimax 기관단총을 야전시험용으로 구입하였고, 대량의 박격포탄과 포탄용 신관 및 뇌관이 이란과 이라크 두 나라 모두에 수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고객들에게도 수출되었다.

Chartered Electronics는 싱가폴 공군물자의 화력통제시스템을 전문적으로 맡고 있으며, 최근에는 싱가폴 공군의 Oerlikon 35미리 대공포 개조를 완료하고, 세계시장으로 수출하기 위해 여러 형태를 제안하고 있다.

Singapore Technologies의 한 子회사인 Singapore Automotive Engineering은 싱가폴군의 5백여 AMX-13SM-1 주전차를 신형 Detroit 디젤동력장치와 변속기, 신형 화력통제시스템과 하이드로뉴메틱 서스펜션 시스템(hydropneumatic suspension system)으로 성공적으로 개조하여, 노후된 AMX-13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에게 강력한 고유의 연구개발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6개 기관으로 구성된 방위기술그룹(Defence Technology Group)



싱가폴의 A-4 Super Skyhawk

이며, 이들은 새로운 무기체계의 획득, 운용 및 개발에서 비용절감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통합순기관리와 지속적인 보수유지정책을 통해 시스템의 유지와 임무능력을 보장하고, 장비의 비축과 지방산업 및 민간자원 활용을 통한 물량 공급능력 확보와 효율적인 기술 및 운용상의 대응책 제시를 통해 새로운 위협과 변화하고 있는 위협에 대처하고 있다.

비록 싱가폴 자체의 방산제품 수요가 어느 특정 제품의 단위수에 있어서는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시장을 형성하는 것은, 필리핀 공군이 그들의 물자를 진보된 기술에 중점을 두고 꾸준히 개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행중에 있는 대표적 무장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F-404-GE-100D 터보팬엔진과 대당 6백만 불선의 Ferranti Delphi 항공전자장비들을 82대의 A-4S에 장착하여 Super Skyhawk 개조

싱가폴군의 주력전차인 AMX-13 SM1



- 다음 4개년 동안 대당 4백만불을 들여서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F-5E/F 44대의 항공전자 장비개조
- 현재 4대가 취역중인 E-2C Hawkeye AEW기 2대 추가 획득
- 해상경비기 (민간용 도시왕복기에 기초한 비행기) 6대 획득
- F-16C/D 2개 편대 획득
- 6대에 달하는 GRP-선체의 소해정과 비슷한 수의 기뢰제거기능을 갖춘 잠수보조함정의 획득
- A-4와 F-5를 이스라엘제 전자병기와 GEC Avionics Atlantic FLIR장비로 장착
- GEC와 Officine Galileo의 선정이 유력시되는 Super Puma 헬기 FLIR 최종선택
-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6대의 「Victory」급 미사일 쇄속정에 첨단방어시스템 장착
- Tuas와 Changi에 새로운 해군기지 건설
- Bofor社의 RBS-90과 Matra Mistral이 최종 선정대상에 올라 있는 저고도 SAM 미사일발 사대 수량 확대
- GIAT AMX-10P가 선정대상에 올라있는 일반차체에 기초한 새로운 계열의 장갑차량과 전장감시레이더 및 원격조종차량 획득
- 사단급 C<sup>3</sup>I로 Thomson-CSF社가 공급하는 신형 전략통신시스템 설치
- 전장조기경보시스템 몇대 획득



### 너만은 믿었는데 …

일호와 진우가 등산을 하던 중 커다란 곰을 만났다. 그러자 일호가 등산화를 벗고 운동화로 갈아신기 시작했다.

이를 보던 진우가 물었다.

「뭘 하는거냐? 그래봤자 곰보다 빨리 뛸수는 없다구…」

일호가 대답했다.

『난, 너보다만 빨리 뛰면 된다구!』

- Mazlat의 정찰 RPV 획득
- GIAT LG-1 105미리 야포 1백여문 획득과 미사일 및 스마트탄 기술에 대한 실질 투자 싱가폴 공군은 육지가 부족하여 대단히 협소한 장소에서 훈련을 하고 있으며, 개량시뮬레이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다음 5개년동안 시뮬레이터 구입에 약3천6백억원(5억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태 국

아세안의 선진국인 태국은 국력보다도 교활함으로 생존하여 왔다고 할수 있으며, 인도-차이나(라오스, 베트남 및 캄푸치아로 형성된) 민주화문제의 최전선에 서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방법에 대한 강대국 (미국, 중국 및 소련)간의 격렬한 경쟁과 결부된 베트남의 비타협은 1979년 베트남의 캄푸치아 침공으로 태국/인도차이나 국경을 「피의 전투장」으로 만들어 왔다.

그리하여 태국은 동료 아세안회원국과 함께 베트남을 캄푸치아로 부터 추방시키려고 계속 군사력행사를 시도하였으나, 태국군의 전투경험이 부족하여 형식적 전투와 소규모 분쟁 및 폭력반대 캠페인만을 펼쳤을 뿐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1988년 2월 Ban Rom Klaو 국경에서 라오스와 벌였던 산발적인 전투에서 보여준 태국육군과 공군의 비효율성이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그 이후 태국은 더욱 전통적인 방위자세를 채택하여, 필수장비의 충분한 획득을 통해 국가의 전투관을 바꾸려는 절실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태국의 재무장에 영향을 미친 또다른 요인들은 장비의 노후화와 남동부해안의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이지역이 최근 해상침입에 극히 취약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多相 (multi-phase)의 태국 방공시스템(RT-ADS)이 1990년대 중반에 운용될 것이며, Westinghouse사의 TPS-43/TPS-70 및 GEC사의 Mar-

telo 장거리 3차원 레이다를 포함한 국가적인 통신망이 구축되어, 여러 방공포시스템들과 주요 항공기지들에 연결될 것이다.

남부해안의 대공방어를 위해 태국공군은 태국灣과 안다만海에 이르는 영역의 보호를 위한 약6천6백억원(9억1천만불)의 예산 사용을 보류중이며, 현재는 이와 비슷한 계획이 동부해안을 효율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계획단계에 있다.

其他의 대공방어력 증강을 위해 태국공군은 포와 미사일을 기초로 하여 Genral Dynamics와 Westinghouse 및 RAFALE이 공동개발한 첨단방공시스템의(Raytheon사의 개량형 Hawk와 같은) 중거리 SAM을 획득하기를 원하고 있다.

태국공군의 비행훈련기준 향상과 현재 보유 중인 47대의 RFB Fantrainer의 교체를 위해 2개 편대의 개량제트훈련기와 50대의 Pilatus PC-9 /Shorts Tucano 터보프로펠러 훈련기들이 1993년까지 발주될 것이다.

육군은 기동력 향상을 위해 6대의 CH-47D Chinook과 FN 12.7미리 기관총으로 무장될 1백 여대의 美 육군 UH-1H Huey 헬기로 구성되는 육군 전용 항공연대를 창설중에 있다.

또한 화력증강을 위해 미국과 오스트리아 및 중국제 120미리/130미리 및 155미리 포병 곡사포와 관련 보급품을 전략적으로 비축하여 교전시 전장으로 급파할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결정하였다.

미국과 중국은 태국이 재래식 소화기 및 포병 보급품산업을 육성하는데 도움을 주기로 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군수품 생산 잠재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육군은 현재 기갑 부대용으로 약 1백대의 중국제 Type 69 주전차(더 다음 단계에서 개조될 것임)와 3백대의 Cadillac Gage Stingray 경전차 및 약80대의 미국제 M-48A5 주전차를 3백대의 M-85 중국제 병력수송장갑차(APC)와 함께 획득하였다.

이러한 장갑차량의 궤도와 화력통제시스템을 개조하기 위한 실질적 계약이 가까운 장래에

입찰을 원하는 미국, 유럽, 이스라엘 및 인도의 방산업체들과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3군의 군사통신과 포병의 대포병사격 시스템 증강을 위해 이동전략무선망과 전자지능 및 암호시스템을 전자병기와 더불어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태국해군은 제한된 遠海작전 임무수행을 위해 크게 증강되고 있고, 이탈리아의 최신 Type 87 GRP 선체의 소해정과 중국에서 구입할 유도미사일 호위함(4척은 「Jianghu IV」급이며, 2척은 「Jianghu V」급) 획득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해정은 다음 5개년동안 약6천1백억원(8억 4천만불) 상당의 C-801 대함미사일을 포함한 중국제 무기로 무장될 것이며, 호위함은 서구의 특수임무용 감지기와 무기들이 장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BAC社의 Sea Wolf가 이러한 장착무기의 하나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병력과 대잠전 헬기를 수송할수 있는 헬기 탑재 함정을 지난 2월 Bremer Vulkan에 주문하여 1994년 말까지 인도받기로 하였으며, FL-1/2 해안미사일 발사대를 중국에 주문하였다.

또한 태국해군은 Rapier와 Crotale 및 Roland와 같은 다른 방공시스템을 획득하여 해안선을 따라 배치하고, 레이다와 광학시스템을 포함하는 일련의 해안감시체계로 통합시킬 예정으로 있다. 이와함께 최초로 잠수함 2척을 90년대 후반에 구입하려는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 참 고 자 료

- ▲ 「Force Modernisation in the Asia-Pacific-Part I」, 〈A.D.J〉, 1991년 3월호
- ▲ 徐義錫, 「西태평양 안보 현안과제」, 월간 〈국방과 기술〉, 1990년 5월호(통권 제135호), p.p 72~78
- ▲ 「특집 : 총력방위체제를 구축해나가는 싱가포르」, 월간 〈국방과 기술〉, 1990년 6월호, p.p 36~63
- ▲ 李相昱, 「말레이시아의 방위산업」, 월간 〈국방과 기술〉, 1990년 11월호(통권 제141호), p.p 44~55